



여성에 대한 태도분석

여 정 희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집단이나 조직에 소속되면 그 사회의 성원에 의해서 공통으로 승인받는 지위 혹은 위치를 갖게되고, 이런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성역할 정체감을 얻게 된다. 결국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 정신적 현상 모두를 포함하고, 그 문화 규범의 기대에 맞게 행동하는 기준이 되며, 생의 적응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 한국 사회는 고도의 물질만능적 추구하고 전통적 가치가 혼재되어 자기의 주체성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Kim, 2001). 한국여성들 중 여성노인은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던 가부장적 문화와 혈연중심의 가족주의적 환경에서 자신의 역할을 가사노동으로 여기며 남편과 자식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이 독립된 개체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사회발전과 교육 혜택, 성 문화와 성 의식의 급격한 변화를 보인 오늘날은 어떠한가? 현시대에서도 가족내 또는 사회내 기성세대의 전통적인 사고가 잔존하며, 이로 인해 신세대 여성들은 여전히 정체감 형성이 어려우며 많은 갈등 속에서 긴장, 자존감 비하 그리고 분노 등을 경험한다. Lee(1977)는 한국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불안증, 우울증, 그리고 정신신체장애 등의 복합된 임상양상인 '화병'을 보고하였고, 이 질환의 발생은 남녀간의 불평등과 가부장제에 의한 억압을 밖으로 분출하지 못하고 참고 억눌린 결과라 하였다(Min, 1989). 또한 여성은 주부역할의 비구조성과 비전문적이

고 일상적인 가사노동의 성격으로 인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긴다(Kim, 1992). 이러한 부정적이고 낮은 자아 정체감은 심리적으로 효율적인 적응을 어렵게 하여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마침내 정서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된다(Thoits, 1983; Whitbourne, 1986). 다시 말하면 여성의 생물학적 성과 맞물린 남녀불평등, 가부장제, 유교문화 등의 사회문화적인 영향은 여성의 성역할을 한정하여 정체감 확립에 혼란을 주며, 이것이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적응에 어려움을 발생케 하고 결국 여성들은 삶에 대해 만족감을 얻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들의 삶의 만족을 위해 올바른 성역할 정체감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문화와의 불가분의 관계를 감안하여 사회에 스며있는 여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여 여성들에게 올바른 성역할 정체감 확립을 위한 방안 모색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으며, 성에 대한 태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경험에 의해 형성되나 개인의 수용과 거부, 판단에 의해 개인마다 다양함을 고려하여 Q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여성에 대한 태도의 주관적 구조(가치, 신념, 의견, 태도)를 파악하여 올바른 성역할 정체감을 확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여성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탐색하여 유형화한다

주요어 : 여성, Q방법

1)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투고일: 2002년 7월 29일 심사완료일: 2003년 6월 7일

- 각 유형별 주관적 특성을 밝힌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여성에 대한 태도의 주관성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Q방법론을 이용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자는 여성에 대한 진술문을 추출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연령별로 노인여성 2명, 성인 여성 2명, 여대생 10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였으며, 두 세 번째는 문헌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면담내용, 문헌과 선행연구의 고찰내용 중 여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여 Q모집단을 선정하고 이를 여러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끼리 배열한 후 연구자 나름대로 주제를 정하여 범주화하였다.

여성에 관한 내용은 27개 범주로 나타났으며, Q진술문을 선정하기 위해 각 주제별 범주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생각되거나 변별력이 높은 의미를 나타내는 진술문을 연구자 임의로 선택한 후 각 진술에 대해 긍정, 부정문을 작성하여 Q방법론 전공 교수 1인의 자문을 얻어 최종 Q진술문 34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진술문은 간호학과 4학년생 4명을 대상으로 사전에 Q분류를 시행하도록 하여 진술문의 내용과 분류시 문제점 여부를 파악하고 수정 후 Q진술문을 확정하였다.

Q방법론은 개인간 차이가 아니라 개인내 의미성이나 중요성 차이를 다루는 것으로 대상자 수(P표본)가 많은 적든 상관 없지만 Q진술문 수와 비슷한 40±20명 정도가 일반적이며, 대상자 선정은 연구될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다고 기대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Kim, 1992).

본 연구 P표본은 노인여성 1명, 성인여성 7명, 남대생 3명, 여대생 12명, 남고생 1명, 여고생 3명, 여중생 4명, 남중생 1명, 남초등생 1명으로 총 33명을 임의 선출하였다. P표본 대상자는 Q카드(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을 두꺼운 종이위에 인쇄하고 절단하여 카드화된 것)을 읽고 동의정도에 따라 Q분류 분포도에 따라 강제분포하도록 하였다. Q분류 분포도 양극단에 있는 카드(가장 동의하는 내용과 가장 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 선택한 이유를 조사하였으며, P표본의 인구학적 요인도 함께 조사하였다. 연구기간은 2002년 3월부터 7월까지 이었다.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P표본으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였다. 코딩방법은 Q분류 분포도에 나타난 카드에 1점(-4), 2점(-3), 3점(-2), 4점(-1), 5점(0), 6점(+1), 7점(+2),

8점(+3), 9점(+4)로 점수를 부여하고 PCQ를 이용하여 Q요인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에 대한 태도유형

대상자들의 Q분류를 근거로 비슷한 진술문을 선택한 대상자끼리 유형을 이루는데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세 가지 유형은 전체변량의 62%를 설명하였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 1 유형은 28%, 제 2 유형은 12%, 제 3 유형은 22%로 여성에 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골고루 관여하였다<Table 1>.

<Table 1> Eigen values and variance for each types

type	type 1	type 2	type 3
Eigen values	9.15	4.12	7.32
Variance	28	12	22

세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제 1 유형과 제 3 유형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제 2 유형과 제 1 유형, 제 3 유형과는 보통정도의 상관관계($r = .50, .53$)를 보였다<Table 2>.

<Table 2> Correlation between types

type	type 1	type 2	type 3
type 1	1.00	0.50	0.73
type 2		1.00	0.53
type 3			1.00

대상자 33명 중 제 1 유형은 10명, 제 2 유형은 4명, 제 3 유형은 7명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외 12명은 분류될 수 없는 복합된 사람이었다. 각 유형내에서 대상자와 유형간 상관관계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의 전형적인 사람으로 간주하는데, 제 1 유형은 대상자 9, 29번이었으며, 제 2 유형은 대상자 11, 33번, 제 3 유형은 5, 2번 대상자로 나타났다<Table 3>.

여성에 대한 태도유형별 특성

33개 진술문 중 유형별로 나타난 강한 긍정적 동의(+4, +3)와 강한 부정적 동의(-4, -3)를 보인 항목 중심으로 각 유형 특성을 파악하였고, 각 유형의 전형적인 사람을 면담하여 그가 속한 유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Table 3> Factor loading score(FLS) of respondent for each type

type 1(N=10)		type 2(N=4)		type 3(N=7)	
respondent	FLS	respondent	FLS	respondent	FLS
9	+75	11	+81	5	-75
29	+75	33	+71	2	-69
17	+73	14	+57	6	-67
12	+70	19	+50	3	-60
8	+63			22	-60
7	+62			24	-54
31	+61			26	-46
4	+58				
32	+56				
23	+54				

○ 제 1 유형: 동등-인정형

이 유형은 총 33명 중 10명이 포함되었으며, 여성 9명, 남성 1명(초등 6)이었고, 이들 중 여성들은 모두 취업하기를 원했으며, 결혼 후에도 지속하기를 바랐다. 연령은 20대 5명, 10대 5명이었다.

이들이 선택한 가장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으로 동의하는 항목 중심으로 해석한 결과 여성에 대한 태도의 특성은 동등-인정형이라 명명하였다. 즉 이들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능력이 떨어지지 않으며, 여성을 비하하지 않고, 오히려 남성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가치있는 독립적인 개체라 인정하였다.

제 1 유형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에 포함된 진술항목을 살펴보면 가장 긍정적으로 동의한 항목은 「여성의 할 일과 남성의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진술문 33), 「여성은 가치있는 존재이다」(진술문 19)로 +4 요인을 나타내었고, 「여성은 남성을 잘 다룰 수 있는 존재이다」(진술문 20), 「여성은 활동에 제재를 받는다」(진술문 7), 「여성은 독립적인 개체이다」(진술문 24)라는 항목은 +3 요인을 보였다. 반면 제 1 유형 대상자들이 요인 -4, -3을 나타낸 항목은 「여성은 운 나쁜 존재이다」(진술문 9),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지적능력이 떨어진단다」(진술문 15) 「여성은 가정과 가족의 책임자이다」(진술문 18), 「여성은 약한 존재이다」(진술문 12), 「여성은 창의적이지 못하다」(진술문 25)이었다<Table 4>.

제 1 유형의 구체적인 설명을 위하여 이 유형의 전형적인 사람(9, 27번 대상자)을 중심으로 Q분류과정시 양극단에 표시한 항목에 대해 면담하였다.

9번 대상자는 18세 여대생으로 세 자매중 장녀이었으며, 부모님의 여성에 대한 인식은 개방적이라고 답하였다. 그녀가 가장 긍정적으로 동의한 항목은 「여성의 할 일과 남성의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진술문 33)로 이를 선택한 이유는 '여성과 남성은 인간을 구분하는 것 뿐이지 모든 것을 여자의 것, 남자의 것으로 구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시간과 능력의 여부에 달려 있다. 현대사회에 와서는 중성적인 인간이 이상적인 것으로 각광을 받듯이 여성과 남성의 구별은 무의미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의 아름다움은 삶에 도움이 된다」(진술문 28)는 항목을 가장 긍정적으로 동의하였는데 그녀는 '남녀를 막론하고 아름답다는 건 삶에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첫인상 등 보여지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유를 들었다. 한편 9번 대상자가 선택한 가장 부정적으로 동의하는 항목은 「여성은 운 나쁜 존재이다」(진술문 9)와 「여성은 심성이 곱다」(진술문 29)로 이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단순한 성별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성에 대해 기술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생물학적인 차이를 차별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였다. 9번 대상자는 여성과 남성은 인간을 구분하는 한 방법일 뿐 둘 다 동등하고, 생물학적 성을 차별과 관련짓는 사고는 변화하는 사회에 맞지 않으며, 외형적인 미는 남녀 모두가 선호하는 현상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제 1 유형의 또 다른 전형적인 사람인 29번 대상자는 21세 여대생으로 1남 1녀에 첫째이었으며, 부모님의 여성에 대한 인식은 개방적이라고 답하였다. 그녀가 가장 긍정적으로 동의한 첫 번째 항목은 「여성은 가치있는 존재이다」(진술문 19)

<Table 4> Statements showing positive and negative response for type 1

	statement	factor value
33	women's and men's work should not be distinguished	+4
19	women are valuable beings	+4
20	women can handle men very well	+3
7	women are limited in their social activities	+3
24	women are independent individuals	+3
9	women are destined to be ill-fated	-4
15	women's intelligence is far below than men's	-4
18	women should take all responsibilities for the home and the family	-3
12	women are weaker vessels	-3
25	women are not creative	-3

이었다. 이를 선택한 이유는 '남성이 못하는 일을 여성은 할 수 있고, 여성없이 사회는 존속할 수 없다' 고 답하였다. 두 번째 항목은 「여성은 독립적인 개체이다」(진술문 24)로 '과거에는 남편에게 속한 비독립적인 존재였으나 지금의 여성은 사고도 개방적이고 교육도 받아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어 혼자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일을 해결할 수 있다' 고 이유를 들었다. 반면 29번 대상자가 선택한 가장 부정적으로 동의한 첫 번째항목은 「여성은 운 나쁜 존재이다」(진술문 9)로 '과거에는 어른 말씀이면 아무런 증거없이 모든 것이 옳다고 받아들였지만 요즘에는 증거 없이는 함부로 수용하지 않는다. 여성은 재수없는 존재라는 말도 이것 중에 하나로 생각되고 요즘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두 번째 항목은 「여성은 약한 존재이다」(진술문 12)로 이를 선택한 이유는 '과거에는 여성이 나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여성에게 교육이 주어지면서 여성은 달라졌다' 고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이 유형의 여성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았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며, 여성의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고, 남성의 도움없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개체이며,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치있는 존재이었다.

● 제 2 유형: 동등-고정관념형

이 유형은 총 33명 중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여성이었고, 연령은 70대, 40대, 30대, 10대 각 1명씩으로 10대를 제외한 3명은 기혼으로 2명은 무직, 1명은 대학강사이었다.

이 유형이 선택한 가장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으로 동의한 항목 중심으로 해석한 결과 여성에 대한 태도의 특성은 동등-고정관념형이라 명명하였다. 즉 이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면에서는 떨어지지 않지만 여성은 남성과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하는 존재로 표현하였다.

제 2 유형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에 포함된 진술항목을 살펴보면 가장 긍정적으로 동의한 항목은 「여성 은 남성의 성공에 달려있다」(진술문 22), 「여성 은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진술문 1)로 +4의 요인가를 나타내었고, 「여성이 아이 키우는 것은 당연하다」(진술문 31), 「여성 은 내면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진술문 5), 「여성의 할 일과 남성의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진술문 33)의 항목은 +3 요인가를 나타내었다. 반면 가장 부정적으로 동의한 항목(4.0요인가)은 「여성 은 운 나쁜 존재이다」(진술문 9), 「여성 은 남성에 비해 지적능력이 떨어진다」(진술문 15)였으며, -3 요인가를 나타낸 세 가지 항목은 「여성 은 창의적이지 못하다」(진술문 25), 「여성 은 경제적 책임이 없다」(진술문 27), 「여성 은 담당하지 못하다」(진술문 6)이었다<Table 5>.

<Table 5> Statements showing positive and negative response for type 2

statement	factor value
22 women's status depends on men	+4
1 women are strongly attached to their children	+4
31 It is natural that women bring up their children	+3
5 women should be beautiful at the heart	+3
33 women's and men's work should not be distinguished	+3
9 women are destined to be ill-fated	-4
15 women's intelligence is far below than men's	-4
25 women are not creative	-3
27 women should not take economic responsibilities	-3
6 women are not confident	-3

제 2 유형의 구체적인 설명을 위하여 전형적인 사람(11, 33번 대상자)을 중심으로 Q분류과정시 양극단에 표시한 항목의 선택 이유를 제시하였다. 11번 대상자는 71세된 여성노인이었다. 그녀가 가장 긍정적으로 동의한 항목 중 첫 번째는 「여성 은 남성의 성공에 달려있다」(진술문 22)로 '여성 은 자식을 키우고 집안일만 했기 때문에 지위라는 것이 없고, 그저 여성의 가치는 남편에 따라 정해지며, 남편이 성공해야 사모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라고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두 번째는 「여성 은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로 '결혼하면 자식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여성이 집에서 하는 일은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 잘 키우는 것으로 자기를 희생하여 남편과 자식이 잘 되면 더 바랄 것이 없고, 이것이 여성의 의무라 생각한다' 라고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한편 11번 대상자가 가장 부정적으로 동의한 항목은 「여성 은 운 나쁜 존재이다」(진술문 9)와 「여성 은 남성에 비해 지적능력이 떨어진 다」(진술문 15)로 이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여성 과 남성은 동등하며, 남성이 하는 일이면 여성도 다 할 수 있으며, 여성이 멍청하다면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도 어려울 것이다'. 11번 대상자는 자신이 평생을 자식과 남편을 위해 살아오면서 걱정없는 편안한 삶을 보냈기 때문에 여성은 결혼만 잘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그녀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이 없어서 집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회구조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며, 자식과 남편을 보좌하는 양과 질도 여성의 능력여부와 관련 있음을 표현하였다.

제 2 유형의 또 다른 전형적인 사람은 33번 대상자로 47세 주부이었다. 그녀가 가장 긍정적으로 동의한 항목은 「여성 은 자식 낳는 역할을 한다」(진술문 3)와 「여성이 아이 키우는 것은 당연하다」(진술문 31)를 선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여성 과 남성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여성 은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고 또한 길러야 하는 운명이며,

여성은 섬세하고 자상하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데 적합하다'고 기술하였다. 반면 33번 대상자가 가장 부정적으로 동의한 항목은 「여성은 경제적 책임이 없다」(진술문 27)와 「여성은 운 나쁜 존재이다」(진술문 9)를 선택하였는데 첫 번째 항목의 이유는 '남성이 없을 경우에는 여성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남편 월급에 준해서 경제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도 돈 버는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하였으며, 두 번째 항목의 이유는 '여성이 자식 낳고 키우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라고 설명하였다. 33번 대상자는 여성은 특성상 자식을 키우는데 적합하며 이는 가족 나아가 사회를 위한 위대한 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에서 볼 때 이 유형의 여성은 능력 면에서는 남성과 동등하지만 성별 역할에 만족하여 사회생활 참여보다는 자식 양육과 남편의 보조적인 역할이 자신의 의무이자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존재이었다.

○ 제 3 유형: 동등-현실형

이 유형의 대상자는 총 33명 중 7명으로, 남성 4명과 여성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남성은 대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이었고, 남성 모두 이들이 속한 유형과 상관관계 정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들이 선택한 가장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으로 동의한 항목 중심으로 해석한 결과 여성에 대한 태도의 특성은 동등-현실형이라 명명하였다. 이들은 여성은 능력면에서 남성과 동등하여 사회활동도 가능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책임도 가질 수 있으며, 남성과 다른 여성만이 갖는 특성이 있다고 표현하였다.

제 3 유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4, +3, -4, -3 요인가를 나타낸 항목을 <Table 6>에 제시하였다.

제 3 유형의 구체적인 설명을 위하여 이 유형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던 사람(5, 2번 대상자)을 중심으로 Q분류과정시 양극단에 표시한 항목에 대한 이유를 기술하였다.

<Table 6> Statements showing positive and negative response for type 3

statement	factor value
33 women's and men's work should not be distinguished	+4
19 women are valuable beings	+4
13 women are delicate and sensitive	+3
28 women's beauty help with their lives	+3
26 women actively take part in social activities	+3
9 women are destined to be ill-fated	-4
15 women's intelligence is far below than men's	-4
25 women are not creative	-3
11 women are ignored	-3
27 women should not take economic responsibilities	-3

5번 대상자는 24세 남자 대학생으로 2남 1녀 중 첫째이었으며, 부모님의 여성에 대한 인식은 개방적이라고 답하였다. 그가 가장 긍정적으로 동의한 항목은 「여성은 가치있는 존재이다」(진술문 19)와 「여성은 독립적인 개체이다」(진술문 24)로 이를 선택한 이유는 각각 '남성은 못하지만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을 보면 가치있는 존재이다', '여성들도 모두 직업을 갖고 여성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다' 라고 하였다. 한편 가장 부정적으로 동의한 항목은 「여성은 약한 존재이다」(진술문 12)와 「여성은 무시당한다」(진술문 11)를 선택하면서 '여성은 남성보다 강한 면이 있으며, 여성도 한 인간인데 무시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5번 대상자는 여성은 남성과 같이 사회활동이 가능하며, 자신의 삶을 개척하여 경제력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개체로 남성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견해를 가졌으나 '여성이 세계를 이끄는 주역이다' 라는 항목에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2번 대상자는 14세된 남중생으로 1남 1녀 중 둘째이었으며, 부모님의 여성에 대한 인식은 폐쇄적이라고 답하였다. 그가 가장 긍정적으로 동의한 항목은 「여성은 섬세하고 감성적이다」(진술문 13)와 「여성은 가치있는 존재이다」(진술문 19)로 선택하였는데, 전자에 대한 이유는 '여성은 뜨개질, 십자수같은 섬세한 것을 잘한다. 이것은 여성만이 갖는 특성인 것 같다' 라고 이유를 밝혔고, 후자의 이유는 '여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 아기 낳는 것과 남자들의 우락부락한 성질에 조화를 이룰 여성의 특질이 필요하다' 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가장 부정적으로 동의한 항목 「여성은 활동에 제재를 받는다」(진술문 7)와 「여성은 운 나쁜 존재이다」(진술문 9)를 선택하면서 '학교에도 보면 여자선생님이 남자선생님 보다 많으며, 여성은 오히려 좋은 존재인 것 같다.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2번 대상자는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고, 여성만이 가지는 특성(섬세하고, 감성적이고, 심성이 곱고)이 있으며, 자식의 양육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책임도 남성과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견해를 가졌다.

이상에서 볼 때 이 유형의 여성은 남성이 가지지 못한 여성만의 특유의 성질을 가지며, 사회생활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남성과 함께 경제적 책임을 가지나 세상을 이끄는 주역은 될 수 없는 존재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대상자들로부터 나타난 여성에 대한 태도는 동등-인정형, 동등-고정관념형, 동등-현실형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상자들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기도 하였다.

제 1 유형(동등-인정형)은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고, 사회적 진출은 성별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가능하며, 오히려 남성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가치있는 독립적인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한 집단이었다. 이들은 과거의 여성 역할이라고 본 자식 양육이나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을 강하게 부정하고, 능력에 따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음을 표현하여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 유형의 대상자는 대부분이 20대와 10대 여성으로 구성되어 신세대 여성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가 진보적이고 긍정적 태도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며, 이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바람직한 변화라 보여진다. Yang과 Jeong(2002)의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여대생이 진보적 성향을 가짐을 보고하였다.

Suh(1998)은 여성의 성역할 의식이 진보적일수록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을 잘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전통적인 성역할을 갖은 남편과 근대적인 성역할을 갖은 부인과의 결혼 생활은 가장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가정은 애정집단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없으며 가족구성원의 정서 및 인성 발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owen & Orthner, 1983). 그리고 Kim(1987)은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대생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대생보다 자아실현성이 더 높다 하였으며, 여성이 남성형이나 양성형 정체감을 가질 때 생의 의미 수준이 높음을 보고하였다(Kim, Choi, Shin & Lee, 2002). 이러한 연구는 성에 대한 진보적 인식이 자존감 향상, 자아실현성 향상 등 정서적 발달뿐 아니라 여성 건강 및 생의 의미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제 1 유형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의 성장에 도움을 주며,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성향으로 보여진다. 또한 제 1 유형의 견해는 남성과 기성세대 그리고 사회전체의 여성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일으킬 시발점이 될 수 있어 사회 전반의 여성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제 2 유형(동등-고정관념형)의 여성에 대한 태도는 제 1 유형과 마찬가지로 능력면에서 남성과 동등함에 동의하나 여성 역할범위를 가정으로 한정하였고, 남편 성공을 자신의 자존감 향상으로 보았다. 이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이 뒤떨어져서가 아니라 사회구조상 여성은 집안사람으로, 남성은 바깥사람으로 자리매김 하여 어쩔 수 없었으며, 이러한 삶이 싫지 않았다는 인식을 가졌다. 이 유형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는 대표적 집단이고, Fisher(1982)가 보고한 남성은 자율성, 적극성, 목적 지향성을 가지며, 여성은 표현성, 의존성, 수동성, 관계성을 가진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이 유형 대상자의 인구조적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한 명을 제외하고 연령대가 30대 중반이후 고령이었다. 이들은 국가의

경제부흥과 가정을 위한 헌신과 인내가 요구되었던 시기에 살았던 세대로 급격한 사회발전과 교육 혜택을 받은 20대의 삶과는 달랐으며,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제 1 유형과 제 2 유형의 구분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성의 개념은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이나 시대적인 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한 Yoo(1979)를 지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들 모두 여성이라는 점이다. 최근 연구(Choi, 1984; Lee, 1982; Lee & Ok, 1985; Seo, 1985; Yang & Jeong, 2002)에 의하면 성에 대한 진보적 인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함을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반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 2 유형 여성들의 연령과 본 연구 남성대상자의 연령간의 차이 즉 30대 중반이후와 20대간의 살아온 시대적 배경차이로 보여진다.

그리고 제 2 유형 대상자들은 성별간의 분리직업을 선호하거나 이를 수용하고, 남편과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인 양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Kim(1997)의 연구에서 나타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담당하고 있는 가사노동에 더 만족해 한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으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자존감을 향상시키거나 행복감을 더 많이 주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이는 여성은 우울감이 증가되고(Kim, 1997), 자존감 저하를 가져오며(Connell & Johnson, 1970), 사회의 낯설음과 자신감의 부족으로 독립적인 건강관리도 어렵고(Suh, 1998), 무심한 세월을 한탄하며, 자식과 남편을 위해 바친 생애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Im, 2000).

제 2 유형 여성들에게 나타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는 자신의 역할을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정하며, 자신의 삶을 독립된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남편과 자식의 삶과 동일시하여 그들을 통해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생의 의미와 건강에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에서 좀 더 융통성 있는 성역할로 변화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의 내면에 있는 열등의식과 의존성을 없애고 당당한 독립적인 개체로 여길 수 있도록 의식개혁과 자신감 부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3 유형(동등-현실형)의 여성에 대한 태도는 여성은 능력면에서 남성과 동등하지만 남성과 다른 여성만의 특질을 가지며, 사회생활 참여도 가능하고, 남성과 함께 경제적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였고, 여성이 아름다울수록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유형과 상관관계 정도가 가장 높은 대상자는 모두 남성으로, 남성이 보는 여성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들 남성들은 여성은 남성과 성격면에서 다른 점이 있음을 수용하고 인정하였으며, 이런

차이점을 여성의 비하와 관련짓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인 사회생활로 예전의 남성들의 몫이었던 경제적 책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였다.

Moon(2000)은 남고생들은 사회활동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인정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뿐만 아니라 남학생(고, 대)의 성역할 태도가 남성형보다 여성형(20.8%)과 양성형(31%)이 더 많음을 보고한 Park, Kim와 Park(1998) 연구와 함께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남녀역할의 구분이 점차 없어짐을 보여준다. Bem에 의하면 이러한 양성형 현상은 일상생활의 적응과 정신건강에 바람직한 모델이며(Park et al., 1998), 성역할의 바람직한 방향이라 제시하였다(Kim, 1987; Suh, 1989).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 3 유형 견해는 남성의 입장에서 이익되는 것은 존속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는 편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그 후면에는 남성우월주의와 여성비하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남성들은 경제적 책임으로 느끼는 부담은 여성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지만 경제적 활동에서의 주역은 여전히 남성으로 여성은 남성 보다 상위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며, 또한 그들의 시각적 즐거움을 위해 여성은 아름답다워야 한다는 견해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을 독립된 개체로 보기보다는 남성의 전유물로 인식하였다. 즉 제 3 유형 견해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 좀 더 확대된 성역할 태도로 변화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남성 편의를만을 고려한 것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역할범위 확대, 생의 만족감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 3 유형의 여성에 대한 견해 기저에는 인간을 독립적인 개체로 보는 시각과 인간을 존중하는 인식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성에 대한 태도의 근대적 변화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결론

본 연구는 여성에 대한 태도의 주관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확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성에 대한 인식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할 수 있는 추상성이 높은 개념으로 Q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2년 3월부터 7월까지였으며, Q진술문은 34항목이었고, P표본은 33명으로 Q분류 분포도에 따라 강제분포한 자료를 코딩하였으며, PCQ를 이용하여 요인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에 대한 태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발견되었다.

제 1 유형은 동등-인정형으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며, 오

히려 남성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가치있는 독립적인 개체라고 인식하였다.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여성도 남성처럼 사회활동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남성이상의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진보적인 태도가 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의 요구에 적응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이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킴이 중요하다.

제 2 유형은 동등-고정관념형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능력 면에서는 떨어지지 않으나 남성과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존재로 표현하였다.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남성과 자식에게 의존하며, 종속적인 삶을 원하는 전통적인 태도가 강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30대 중반이후의 고령으로 시대적 배경이 여성에 대한 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여성의 자아개념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며 결국 삶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게 한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태도를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제 3 유형은 동등-현실형으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나 여성만의 특질을 가지고, 사회활동도 가능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표현하였다. 이 유형은 다른 유형과 다르게 주로 남성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남성의 여성에 대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들의 견해는 내용면에서는 여성에 대한 태도가 과거보다 근대적으로 변화한 듯 보이나 생물학적 차이의 잔재인 여성만의 특질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경제적 책임을 나눠줌으로써 부담을 덜고자하는 남성 편주의를 엿볼 수 있었다. 따라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태도가 근대적으로 변화함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변화의 밑바탕엔 여성의 독립성과 존엄성이 깔려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며, 연이어 올바른 정체감 형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반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태도의 주관성 특성을 파악하여 여성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태도는 연령, 성별에 따라 차이를 파악하여 살아온 시대적 배경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남성이 보는 여성에 대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남녀간의 인식 차이를 확인함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제언

- 남성이 보는 여성의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었으나 본 연구의 남성대상자가 20대 연령에 제한되어 남성 전체를 대표한 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연령이 많은 여성일수록 성에 대한 전근대적 태도를 보임

을 본 연구에서도 나타나 이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 본 연구에서 성에 대한 인식은 시대적 배경, 성별에 의해 영향받음을 확인하였으나 성에 대한 인식전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영향요인을 규명함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Bowen, G. R., & Orthner, D. K. (1983). Sex-role congruency and marital quality.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 223-230.
- Choi, K. R. (1984). A study on the sex-role attitude and marital satisfaction of husbands and wives. *J of Home Economics*, 22(2), 91.
- Connell, D. M., & Johnson, J. E. (1970). Relation between sex-role identification and self-esteem in early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3, 268.
- Fisher, R. J. (1982). *Social psychology: An applied approach*. New York: St. Martin's Press.
- Im, T. Y. (2000).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and discovery of meaning in mid-aged womens experience of the change of body. *Quality Research*, 1(2), 125-133.
- Kim, E. A. (1992). *A study on ego-identity and meaning of life of middle-aged women*.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H. G. (1992). Understanding of Q-methodology for subjectivity research. *The Seoul J of Nursing*, 6(1), 1-11.
- Kim, H. S. (1987). *A study of college women's self-actualization according to sex-role attitudes - Centering around Gwang-Ju city-*.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nam.
- Kim, J. G. (2001). *Women health of mid-aged women*. Paper presented at the 10th Autumn's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Seoul.
- Kim, M. S. (1997). The impact of gender role attitudes on mental well-being. *Health Society Research*, 17(2), 50-73.
- Kim, S. N., Choi, S. O., Shin, K. I., & Lee, J. J. (2002).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role identity and the meaning in the life for a matriarch. *Korean J of Women Health Nursing*, 8(2), 190-200.
- Lee, H. S., & Ok, S. W. (1985). A study on the sex role attitudes and decision-making style of husbands and wives. *J of Home Management*, 3(2), 31-43.
- Lee, J. Y. (1982). *A study on husbands' sex-role attitude and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S. H. (1977). A study of the Hwabyung. *J Korea Hospital*, 1, 63-69.
- Min, S. K. (1989). A study of the concept of Hwabyung.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8(4), 604-616.
- Moon, I. O. (2000). A study of sexual attitudes and opinions for 10th grade students in Co-Ed. *J of Kor Soc for School Health Education*, 1(2), 1-16.
- Park, Y. S., Kim, Y. I., & Park, Y. H. (1998). Sex-role identity & stereotypes of students in high school and college. *J Korean Soc of School Health*, 11(1), 51-62.
- Seo, D. I. (1985).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sex-role attitudes and marital satisfaction - Centering around urban housewives -. *J of Home Management*, 1(2), 139-150.
- Suh, J. A.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sex-role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tendency of high school girl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Suh, Y. O. (1998). Hardness and gender role characteristics in middle aged women. *J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2), 181-193.
- Thoits, P. (1983). Multiple ident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reformulation and test of the social isolation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174-187.
- Whitbourne S. K. (1986). *The me I know: A study of adult identity*. New York: Spriner-Verlag.
- Yang, S. K., & Jeong, G. H. (2002). Perceptual difference of sexual image and sexual rol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in university. Korea. *Korean J of Women Health Nursing*, 8(2), 289-300.
- Yoo, Y. J. (1979). A study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Korean urban families. *Home Economics Journal, S.N.U.*, 4, 1-13.

An Attitudinal Study on Women

Yeo, Jung-Hee¹⁾

1)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e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formed to propose a theoretical background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women's lives by measuring the subjectivity on women. **Method:** Q-methodology is used for purpose. Q-statements a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a literature review. 34 Q-statements were selected. There are 33 subjects in the research. The Q-Factor Analysis using PC Quanl program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data. **Result:** There were

three types of opinions on woman. The first type(equal-recognitive) thinks that men and women are equal, women can handle men, and women are independent, valuable beings. The second type(equal-fixed idea) express that women are not behind men in terms of abilities but are supposed to live for the sake of their husbands and children. The third type(equal-practical) answer that men and women are equal, but women have their own personalities and can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and can financially help the families. **Conclusion:** The study express the overall opinions and attitudes on woman as reviewed by the research subjects. Therefore, this study helps the seizure of an opportunity to build a theoretical base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women's lives.

Key words : Women, Q-method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eo, Jung-He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eju National University

1, Ara-1 dong, Jeju 690-756, Korea

Tel: +82-64-754-3883 Fax: +82-64-702-2686 E-mail: jheeyeo@cheju.ac.kr